

海外業界動向

IMF '93년 세계경제 성장률 2.3%로 수정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작년 9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하향 수정하였다. 1993년의 세계전체의 경제성장률을 연 2.3%(9월 발표후 3.1%)로 대폭수정, 일본 2.4%(동 3.8%), 독일 0.6%(동 2.6%) 등 일제히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 일본의 단기금리의 인하 등 추가적인 경기자극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MF는 매년 봄과 가을에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발표 후 수정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구주의 통화제도가 혼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구주의 경기둔화가 예상외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미국은 3.0%(동 3.1%)로 비교적 소폭의 수정에 머물렀고, 선진국 전체에서는 2.0%(동 2.9%), 개발도상국은 5.7%(동 6.3%)로 하향수정되었다.

일본의 '92년의 성장률도 1.6%(동 2.0%)로 하향수정되어, 종합경제대책을 평가하면서도 「소산 Deflation과 그것에 따른 금융면의 문제에 의한 경기회복의 지연이 염려된다. 기대대로 회복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추가적인 단기금리의 완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에 대해서는 「금융 완화의 조건은 곧 정리될 것」이라 하고, 조기의 대폭 금융완화에 강력한 기대를 보였다.

미국의 Audio기기 3/4분기 출하 실적

미국전자공업회(EIA)에 의하면, 미국의 9월 Audio기기 출하실적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1.3% 상회하는 호조를 보여, X-MAS

상품을 향하여, Audio기기의 출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분야별로는, 금액기준으로 포터블 Audio 31.3% 시판 Auto Sound 30.7%, 시스템 콤포넌트는 28%로 모두 전년동기대비를 크게 상회하였다.

부진한 부품 콤포넌트도, 9월에는 회복을 보여, 금액기준으로 3.5% 하회하였으나, 수량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하였다.

호조를 보인 포터블 기기는, 9월에는 최고인 3억불을 돌파하였다. 1~9월 전반기에서는 18.7% 신장하여, Audio 전체의 약 35%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을 보였다.

1억 7,000만불을 출하한 시스템 Audio는 3/4분기까지 4분야중 가장 미약한 분야이지만 9월의 출하금액은 포터블 기기에 이어서 제2위를 나타냈다.

특히 미니 콤포넌트, 미니 미니 콤포넌트 등의 Compact형이 전년동기대비 67% 상회하여 1억 600만불을 차지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대형 랙 시스템은 8% 감소한 6,400만불로 축소되었다. 전체적으로 Audio의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3/4분기 Audio기기 출하금액

제 품	9월			1~9월		
	'92년	'91년	신장률 (%)	'92년	'91년	신장률 (%)
포터블기기 (가정용Radio포함)	304,573	231,881	+31.3	1,699,164	1,431,690	+18.7
단품 콤포넌트	164,596	170,593	-3.5	1,105,958	1,308,346	-15.5
시스템Audio	169,818	132,677	+28.0	933,151	868,032	+7.5
시판 카오디오	136,650	104,522	+30.7	1,125,249	950,788	+18.3
합계	775,636	639,672	+21.3	4,863,521	4,558,856	+6.7

(자료 : EIA)

미국의 '93년 설비투자 5.3% 증가

미 상무부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93년 미국 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총액 5,765억 5,000만불로 '92년 실적전망액에 비교하여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최근 수년동안 약간 저조하게 추이되어 '93년의 신장률은 '89년의 11.4% 이하의 수준이다.

'93년의 인플레이션 조정후 신장률은 7.6%로 전망된다.

'93년은 항공기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가 전년대비 6.2% 증가로 플러스로 전환될 것을 비롯하여 섬유, 식품, 화학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5.2% 증가(인플레이션 조정전기준)으로 점점 순조롭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제조업도 5.4% 증가가 예상되는데, 전력 등의 강력한 계획이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소형 모터의 수용증대로 미국에서 출력이 1마력 미만의 소형 모터의 수요 신장이 예상된다.

소형모터는 자동차에 잘 사용되는데, 이 외 공업기계, OA기기, 전산기 관련의 수요도 신장이 전망된다. 시장조사회사 TFG의 보고에 의하면, 모터의 수요는 '96년에 달하며, '91년 대비 44.2%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무역흑자 더욱 확대 전망

일본무역회가 최근 발표한 '92, '93년의 일본 무역전망에 의하면,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 기조를 배경으로 순조롭게 신장되는 경향이 계속되어; 무역흑자는 통관기준에서 '92년도가 사상최고인 1,155억불(전년대비 30.8% 증가), '93년도는 1,295억불(동 12.1% 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회는 종합상사 9사의 예측치를 집계하여 전망을 세웠다. 전제로써, '92년, '93년도의 일본의 실질성장률은 각각 2.5%와 3.1%로 하였고, 환율은 '93

년도의 1불=125엔에서 더욱 엔고가 추진되어 '93년도는 1불=120엔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92년도의 무역액은 수출이 현지생산의 확충에 따른 부품 공급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한 3,525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수입은 국내경기의 퇴조를 반영하여 2,370억불, 동 2.0%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93년도는 수출이 세계경기의 회복기조를 반영하여 기계기기를 중심으로 착실하게 신장하여, 총액에서 동 6.4% 증가한 3,750억불로 예측하였다. 수입은 국내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계기기 외, 화학품, 석유 등도 순조로운 신장이 기대되어 동 3.6% 증가한 2,455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 전자업계의 '92년도 중간결산 매출 100대사

일본의 주식시장에 상장한 전자업체는 대부분 3월 결산으로 약 200사에 달하였다. 9월 중간결산에서는 대부분이 감수인 대폭감익이 되어, 업적이 부진할 것으로 부각되었다.

매출 100대사를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수익증가업체는 27개사였고 수익감소업체는 73개사였다.

상위의 대기업을 비롯하여 일제히 하락하여, 한계점까지 온 것을 나타낸다.

수익증가업체중 일통공이 41% 증가로 돌출, 일통공 판매를 합병한 특레이다. 나머지는 10%대의 수익증가가 최고로 일본무선, TEAC, 일신전기, Sony Music, Uniden, 능미방재의 6사로 나타났다.

전자업계는 어떤 부문을 보아도 국내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전기기는 전력설비 투자의 확대가 있어도, 기업설비 투자의 억제가 영향을 미쳐서 FA기기도 하락이 예상된다. 가전은 AV의 국내의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단위 : 백만엔)

순위	업 체 명	매출액	전 년 동기비	연도예상 (억엔)
1	마쓰시다전기	2,294,194	▲ 6.9	46,000
2	히다치	1,895,610	▲ 5.6	38,000
3	도시바	1,518,249	▲ 1.2	32,500
4	N E C	1,361,703	▲ 7.0	30,500
5	미쓰비시전기	1,178,902	▲ 4.5	25,400
6	후지쯔	1,158,343	▲ 0.4	24,700
7	소니	959,216	▲ 3.7	19,000
8	샤프	583,572	▲ 3.4	11,800
9	리코	336,122	0.7	6,760
10	후지전기	280,303	▲12.0	6,400
11	오키전기	261,843	▲ 8.5	5,800
12	일본빅터	253,511	▲20.1	5,400
13	마쓰시다통신	209,100	▲ 3.5	4,400
14	파이오니아	205,525	▲ 2.7	4,055
15	다이킨공업	190,100	▲ 6.1	3,600
16	T D K	188,039	▲12.3	3,700
17	큐슈마쓰시다전기	176,379	4.4	3,690
18	카시오계산기	171,027	3.5	3,450
19	음론	169,766	▲10.8	3,700
20	알프스전기	161,013	▲11.4	3,100
21	Kyocera	148,131	▲ 9.1	3,081
22	송하전자공업	146,130	▲ 1.2	2,850
23	촌전제작소	114,603	▲ 6.6	2,230
24	Kenwood	107,228	4.4	2,150
25	송하냉기	102,168	▲ 9.0	1,845
26	Minolta Camera	99,517	▲11.9	2,100
27	주우전장	98,493	3.9	1,960
28	황하전기	90,022	▲10.3	1,830
29	명전사	88,061	▲ 8.5	1,861
30	스탠리	84,183	▲11.4	1,703
31	도건제작소	83,898	2.2	1,790
32	동경전기	83,313	▲ 3.0	1,700
33	Rohm	81,678	▲13.5	1,600
34	일동전자공업	81,127	▲ 3.6	1,650
35	부사통제너럴	80,511	▲ 1.1	1,587
36	아이와	77,236	2.5	1,600
37	클라리온	71,814	▲ 7.3	1,474
38	마키타	66,770	3.7	1,230
39	대일본스크린제조	63,975	▲ 8.9	1,250
40	화낙	62,263	▲26.5	1,243
41	일립맥셀	62,240	▲ 3.3	1,260
42	일립공기	62,014	▲ 4.1	1,230
43	일본무선	61,609	11.4	1,430
44	산켄전기	61,212	▲ 2.1	1,225
45	산덴	61,096	8.3	1,100
46	안주전기	60,992	▲15.7	1,270
47	TEAC	59,838	12.9	1,220
48	삼협정기제작소	56,072	▲ 6.9	1,070
49	국제전기	55,758	▲13.9	1,060
50	일신전기	55,547	15.4	1,100

(단위 : 백만엔)

순위	업 체 명	매출액	전 년 동기비	연도예상 (억엔)
51	소니뮤직	50,857	11.1	1,000
52	신강전기	47,786	▲ 0.6	1,010
53	일립메디코	47,194	▲ 3.5	943
54	송하정공	46,747	▲ 3.9	900
55	일본전지	46,105	▲ 2.1	1,000
56	일본콜럼비아	45,831	▲ 7.1	970
57	알파인	44,709	1.2	870
58	우엽전자공업	43,371	▲16.6	833
59	일본 C M K	42,843	▲12.6	880
60	호시덴	42,742	0.0	880
61	유아사코포레이션	42,250	7.0	920
62	고악제작소	41,503	▲11.7	795
63	부사전기화학	40,469	▲ 1.2	825
64	크라운	40,163	▲32.3	900
65	안리쯔	40,086	▲11.6	840
66	신광전기공업	38,579	5.7	741
67	다이헨	37,895	▲11.9	760
68	일통공	36,901	41.3	800
69	신전원공업	36,701	▲10.4	765
70	니티콤	36,645	▲ 9.9	720
71	태양유전	35,336	▲16.7	680
72	동양통신기	33,458	3.3	690
73	토킨	32,915	▲14.6	672
74	글로리	32,666	▲ 7.2	680
75	아마다메트릭스	31,926	▲17.5	640
76	일본전산	31,887	6.3	630
77	유니덴	31,336	19.4	606
78	일립전자	31,142	4.2	615
79	일본케미콘	30,750	▲16.8	600
80	애지전기	29,905	8.7	560
81	일본항공전자공업	29,836	▲24.9	650
82	신신호전기	28,936	▲ 5.0	597
83	주우특수금속	28,228	▲12.7	560
84	C K D	28,223	▲19.6	566
85	일본신호	28,065	6.2	630
86	암기통신기	27,733	▲ 7.3	580
87	북육전기공업	27,606	▲ 9.2	525
88	어드밴스드	27,432	▲33.6	570
89	소계공업	27,394	14.6	725
90	S M K	27,237	▲16.7	532
91	능미방재	27,201	14.7	620
92	리코엘렉스	25,085	▲ 9.5	515
93	다무라제작소	24,968	▲ 9.4	510
94	경삼제작소	24,845	▲ 1.1	570
95	호치키	26,696	7.8	590
96	치논	24,218	▲ 9.7	530
97	지상통신기	24,117	▲ 1.8	495
98	일동공업	23,662	▲11.8	465
99	일립에어이씨	23,008	▲12.3	455
100	일본전자	22,254	▲ 7.5	410

(주)▲감수, 연도예상은 중간결산발표시의 회사에상도

전년도까지 공헌도가 있었던 에어컨도 급감으로 전환되었다.

컴퓨터관련은 은행과 증권의 불황에, 유통업계의 업적악화도 영향을 미쳤다. OA기기는 보급 한계로 침체상태에 빠진 제품이 많고, 시장경쟁의 격화로 시황도 전반적으로 미약했다. 통신기기는 NTT와 신전전의 설비투자가 활황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무선전화기의 보급이 정체되었고 이동통신도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측기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설비투자의 억제영향을 정면으로 받아 매출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부품은 가정용·산업용 모두 수주가 향상되지 않았다.

반도체는 대 동남아시아가 호조로 미국용 수출이 호전되었으나, 국내는 주력메모리의 4 Mbit DRAM의 수요와 시황이 둔화됐다.

순위의 변동을 12위내에서는 구주 송하와 Casio의 상승이 눈에 띈다. 20~50위에서는 KenWood, Aiwa가 Audio 불황으로 일궈져가는 가운데, 연속상승하여 건투하였다. 마키타, 일본무선, 일신전기도 신장하였다. 이어서 신규상장의 Sony Music이 단번에 51위를 차지하였다. Hosiden, 신광전기공업은 연속 상승하였다.

일본 컴퓨터업계의 매출 구조의 전환

일본의 컴퓨터업계에서 비하드가 하드웨어를 크게 상회하는 것은 일본 IBM이다. 하드 비율이 '91년도 60%에서 '92년도까지 40%로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92년도는 서비스업체로의 변신을 표명하여, '93년도는 신체제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동사의 제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Unstop Shopping Center」의 개념으로 「IBM Professional 전문직」에 의한 일대 「전문점 센터」가 서비스를 한다. 내용은 컨설팅, 유지보수 및 관리,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Youth Wear

등 21분류이다.

일본 Digital Equipment는 '92년도의 서비스 비율이 10% 증가한 50%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고객의 문제해결은 업종별 사업부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91년 7월에 기구개혁했다. 시장 Needs는 System Integration Needs가 강력하므로, 그것에 대응함으로써 서비스 부문의 신장을 보였다. System 소프트웨어 등과 합치면 '95년에는 비하드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Unisys는 비하드가 '92년도에 38%에서 '95년도에는 45%로 8%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자계 메인 프레임 업체의 변환을 살필 수 있다.

후지쯔는 비하드가 '91년 27%에서 '95년도는 35%로 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91년은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약 6,000억엔 규모이다. 작년 6월에 종합 서비스체계 Propose를 발표하였다. 113종의 서비스 메뉴를 준비하여, 작년에 150종의 메뉴를 준비하였다. SI의 도입, 네트워크 서비스, 지역·빌딩 정보화 정보처리, VAN, 연수 등 다채롭다. Propose 추진부문이 부·과에서 소프트웨어 판매추진부, 시스템 사업추진본부 서비스 사업부, 현장지원추진본부의 각 부문에 설립되었다. 또한 「Expert 제도」로 전문직이 도입도 시작되었다. 가격은 수만엔에서 수백만 내지 수천만엔 등의 참고가격이 준비되어 있다.

히다치는 비하드가 '91년도 35%에서 '95년도까지 5%증가하여 40%로 예측된다.

NEC는 소프트웨어 비율이 15%에서 5년간에 10% 증가한 25%로 신장할 전망이다. 퍼스컴의 매출이 크고, 하드의 매출 비율의 저하는 작다. 동사는 4월에 「Solution 21」을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범용서비스 메뉴 50종, 업종솔루션 서비스 116종을 준비하였다. 계약체계, 가격체계를 준비하였다.

YHP는 분야별로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신장률이 하드의 신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계계 Soft가 3년간에 8% 증가로 25%를 나타냈다. 현재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Case의 중급제품이 연율 25%의 신장을 보였다.

일본 Sun Microsystems 및 Apple Computer는 하드 및 OS의 일체판매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일부 별도판매는 있지만, 현상의 대부분이 하드판매라는 구성은 최근 수년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컴퓨터업체의 비하드 매출 추이에측

업체명	컴퓨터 사업 총매출	1991 년도	1992 년도	1994~ 1995년도
후지쯔	하드웨어 비율	73%	70%	65%
	소프트웨어 비율			
	기타	27%	30%	35%
NEC	하드웨어			
	기타 비율	85%	85%	75%
	하드웨어 비율	15%	15%	25%
일본IBM	소프트웨어 비율	60%		40%
	소프트웨어 비율			
	기타	40%		60%
일본 Digital Equipment	하드웨어			
	OS	60%	50%	45%
	시스템 비율			
일본 Unysis	서비스 비율	40%	50%	55%
	하드웨어 비율	62%	61%	55%
	소프트웨어 비율	25%	26%	28%
	기타 비율	13%	13%	17%

자료 : 전자신문 조사결과('92. 12. 1)

태국현지의 일본 전자업계 동향

1. 현지개요.

일본의 전자업계는 최근 수년간,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Asean을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구축하려는 동향이 표면화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풍부한 노동력을 지향하여 주요 업체들이 계속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데, 최근 태국에서의 생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진출을 위한 커다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은 여전히 매력은 있지만, 고도 경제성장에 사회기초기반 개선 속도가 늦고, 또한

기술자를 비롯한 인재부족과 전자기기 생산의 신장에 필수불가결한 재료, 부품 등의 연관산업 등의 산업기반 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투자위원회(BOI)가 결정한 수출입 절차의 번잡함 등 일본의 진출업체는 거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민주화 운동을 기회로 작년 4월이후, 방콕 근교의 주요 공업단지에서는 파업이 빈발하는 등 노무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근로자 일당 최저임금도 방콕주변에서 '91년이 100바트 '92년이 115바트로 연율 10%치의 인상을 보였다. '93년에는 135바트가 근로자로부터 제시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태국에서의 생산 Merit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태국의 정세 가운데에서 수출지향형의 일본업체들은 일본의 경기침체가 현안으로 부각되어 진출후 처음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컬러TV를 생산하고 있는 어느업체에 의하면 피크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7할 정도, 세계적으로 재조정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약간 상승기조에 있지만 그래도 생산 피크를 상회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까다로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기용품을 착수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신장에 제동이 걸려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수출지향형 기업에서는 규제한도내에서 필요로서 대응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부품의 현지조달, 생산품목의 확충, 또한 대미시장으로의 수출가속으로 기업성장을 지향시키고자 하는 동향이 활발해지고 있다.

2. 진출 업체 동향

JVC Manufacturing(태국)은 '91년 2월에 부품공장이 완성됨에 따라, 컬러TV용의 DY·FBT를 현지생산 또한DY에 대해서는 기기의 디스플레이어 용으로써 외판을 궤도에 올렸

다.

또한, Sharp Appliances Thailand(SATL)은 전자렌지, 냉장고, 에어컨, Fax를 양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적확대로 급성장하였는데, 금후는 안정성장을 위한 경영체질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당면, 종업원을 증원하는 현재까지의 전개에서 생산의 자동화를 상승시켜, 질·양 모두 강화, 확충해 나아갈 생각이다.

한편, 내수지향형의 일본업체들은 금후도 경제성장률이 고성장 지속을 근거로 하여, 연율 두자리대의 매출확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세가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수년, 최저임금의 연율 두자리 상승 등 태국내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것이 가전제품의 수요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는 메이커가 많다.

마쓰시다 전기의 해외생산 거점의 제1호인 National Thai는 최근 수년동안 약20%의 신장을 기록하였다. 당면, 신장률은 둔화되겠지만 10%치의 신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동사에서는 방콕시 근교의 밤프리지역에 약 23만m²의 용지를 확보, '96년을 목표로 생산부문을 밤프리 공장으로 전면 이전, 확충할 계획이다.

벌써 밤프리공장에서는 전자부품을 집결 지난해 제2棟이 완성되는 것을 계기로 부품의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이어 TN, Audio를 비롯한 세트의 생산도 금년 이후 이관해 나아갈 생각이다. 또한, 냉장고, 전자조리기, 에어컨, 세탁기, 보온밥통을 생산하는 Ap National은 동후 3년간, 연율 20%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내수확대를 기본으로 수출에도 힘쓸계획이라고 한다.

향후 현지생산율을 상승시킬 계획이지만 한편으로는 신기종의 생산에도 주력하여 특히 금년부터 세탁기에 대해서는 보급Model의 전자동식 생산도 개시할 계획이다.

Shap의 합작판매회사인 Shap 테프나콘

(ETCC)은 3년후에 태국에서의 매출을 현재의 약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써 직계의 컬러TV 공장(STTM)을 지난해에 가동했다. 이 공장은 14'형 뿐만 아니라, 금년 3월까지 20'형, 21'형으로 생산기종을 확충하여, '94년에 10만대, '95년에 13만대로 치수를 확충시킬 계획이다.

또한, 금년중에 가라오케의 성장도 착수할 계획이다.

태국에서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Sonyo유니버설전기는 향후 3년간, 10%의 신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냉장고, 및 콤프러서,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기밥솥, 가스렌지, TV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새롭게 세탁기의 현지생산도 개시하였다.

현재, 3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새롭게 카빈브리에 26만m²의 용지를 확보하였다. 태국 내에서 50%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냉장고에 대해서는 1Door, 2Door 뿐만 아니라, 금년초에도 3Door의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으로는 '96년을 목표로 카빈브리 공장을 설립하여, 현재의 2배이상의 연내 100만대 체제를 확립할 구상이다.

EC(위)의 경제전망 보고서

EC위원회는 최근, EC의 경제상황에 관한 각료이사회에 보고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EC전체의 성장률을 '92년 1.1%, '93년 1.0~1.5%로 낮게 예측하였다.

이것은 경제전체의 경기둔화에 의해 특히 역내의 수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실업률은 계속 상승을 보여, '93년은 11%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적자도 EC전체의 국내총생산(GDD)의 최고 5.5%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플레이션율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기적 전망으로서는 '93년의 결과에 따

라, 3% 정도의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결론부분에서, 과거 1년간의 경제 및 환율의 동향 가운데에서, EC 및 선진 7개국의 경제정책 협조에 담보상태의 혼란을 보인 점을 지적, EC각국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협조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텔레콤, 합병기업 설립

독일의 분데스포스트 텔레콤과 프랑스 텔레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고객에게 Global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분데스 포스트 텔레콤은 이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쌍방은 절반출자로 암스텔담에 주식소유회사 유로 네트콤·BV를 설립하여, 독일에서 사무거점으로써 프랑크푸르트에 유로네트콤·GmbH를 설치할 예정이다.

분데스포스트 텔레콤은 또한 중·동구의 통신 기반시설 건설을 위하여, Deutch Aerospace (BASA) ANT나카리히멘 자사와의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분데스포스트 텔레콤이 51%의 과반수를 출자할 계획이다.

대만, 제품과 기술력의 대전환 모색

대만 산업계에서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한편, 국내에서는 국가건설 4개년 계획에 의해 국내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계획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교통, 건설분야 및 쓰레기 처리, 소각 등의 환경보호 대책을 2대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자금의 해외유출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증권시장이다. 대만의 증권관계자

에 의하면, 하루의 주식거래액이 피크였던 3년전에 2,000억 NT불(약1조엔)이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50억 NT불(250억엔)로 1/4로 축소되고 있다. 해외투자에서는 중국대륙으로의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근간산업은 대만에 남고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에 투자해도 최종적으로는 대만에 환원된다는 생각에 기인할 것이다. 경제 기획청을 통한 정부신청이 없는 자금유출도 많으므로, 통계수치 이상으로 자금 유출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국에는 8,800개의 해외로부터의 공장이 진출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며 「국제화라고 해도 생산의 국제화가 없고, 세일즈의 국제화밖에 없다. 중국은 문화면에서도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고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표명하고 있다.

대만에 있어서의 자원은 사람, 물건, 돈이 핵심이며, 이러한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대만의 번영을 지탱해 온 중소기업의 R&D의 투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도 MIT(Made In Taiwan 대만제)제품, 기술의 우수성을 어필하는 캠페인을 정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보기기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강매활동도 더욱 활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UMC, 32M Mask ROM 개발

대만의 반도체업체인 United Microelectronics사(UMC 연합전자)는 최근, 21Mbit의 Mask ROM을 개발, 내년 제2/4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 Mask ROM 「UM23C 32000F」는 작년말에 발표한 16Mbit제품에 이어 완성하게 되었다.

UM23C 32000F는 0.6미크론 cMos기술을 사

용하여 5V전원에서 동작, 랜덤 액세스 시간은 150나노이다. UMC에 의하면, 동마스크 설계에 즈음하여 다이내믹 센스 증폭기술을 채용, 신뢰성, 스피드, 성능면에서 대폭적으로 향상시켰다. 종전, 대용량의 RAM을 설계할 경우 소비전력이 늘어나고 속도가 낮아져 신뢰성 저하를 초래하는것이 보통이었다. UMC의 동증폭기술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한 것이다. 동Mask ROM의 용도로써는 레이저 프린터용 문자발생기, 전자수첩, 팜 톱 컴퓨터 등이 예상되고 있다.

UMC는 현재, 고객에게 새로운 32Mbit 마스크 ROM의 성능평가를 의뢰중인데, 64Pin QFP의 패키지 형태로 연내까지 샘플공급을 개시, 양산은 '93년 4월이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퍼스컴 모니터 “신 공급기지”로 각광

급증하는 미국의 퍼스컴수요에 대응하여, 중국이 새로운 모니터 공급기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한주신리전기공장과 호남전자계산기공장의 국영회사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양사는 또한, 미국에 영업거점을 구축하고, 미국기업과의 제휴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중소기업이 모니터시장에 참가, 미국과의 비즈니스 확

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 모니터 기술이 초기단계에 있는데, 대부분의 중국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것은 주로 Low-end의 흑백기종과 컬러의 Video Graphic Array(VGA) 기종이 현상이다. 그러나 한주신성은, 향후 대만과 한국에 대항하려면 고급기인 슈퍼VGA 모니터의 개발이 필수불가결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동사에서는 현재, 200명의 종업원이 14인치 흑백과 컬러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슈퍼 VGA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이다. 기술면과는 달리, 국영기업의 양사에 있어서 유통이 커다란 과제이다.

이 메이커는 중국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출하실적은 있지만, 대미 판매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의 판로확보를 향하여 제휴처를 탐색하고 있다.

중국의 VLSI와 ASIC 개발 계획

중국에서 VLSI와 ASIC의 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기계전자공업부가 공동으로 정리한 계획에 의하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외국인 전문가를 초대하고 최신의 기술과 설비를 선별적으로 수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